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3 우리가 편다

광주철인클럽

수영·자전거·달리기 달인들 “체력만큼은 자신있다”

1999년 창단 20~60대 회원들 포진... 전국철인대회 섭렵 실력 과시

3·1절 마라톤에 아이언맨들이 편다. 오는 4일 개막하는 제53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광주철인클럽(회장 김경민·이하 철인클럽) 회원 30명이 참가해 광주 도시를 달리며 마라톤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

철인 3종경기는 마라톤과 수영, 사이클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치르며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는 종목의 하나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철인클럽 회원들은 체력만큼은 자신 있다는 각오다.

철인클럽은 1999년 철인 3종경기 전문 동호회로 창단되어 현재까지 전국철인대회를 두루 섭렵하는 등 실력을 과시해 온 클럽이다.

이번 대회에는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195km의 ‘아이언맨’ 코스 안

주자를 칭하는 ‘철인’에 등극한 이들이 대부분 참가하기에 폴코스는 평균 2시간 40분대에서 3시간 중반대, 하프코스는 1시간 40분대로 완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0명이 넘는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고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연령들이 함께하는 철인클럽 회원들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철인클럽의 총무팀장이자 현재 광주시 산악구조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규 철인은 지난 2017년 5월 김홍빈 대장의 히말라야 로제(8516m) 원정에 등반대장으로 참여해 등정을 성공으로 이끈 실력자다. 또, 훈련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의 철인은 한의사, 의료팀장인 심상돈 철인은 동아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클럽이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모여 훈련을 펼친다.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드컵 경기장과 풍암저수지를 둘러싼 중앙공원 일대 20km이상의 장거리를 달리기나 인터벌 훈련 등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또, 클럽 자체적으로 매년 2회씩 사이클 10km, 마라톤 42.195km, 사이클 10km를 실시하는 ‘듀애슬론’ 경기를 열어 회원들의 친목과 체력을 다지고 있다.

이선규 총무팀장은 “3·1절을 맞아 순국열사들의 마음가짐과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3·1절 대회에 출전한다”며 “끈기 있는 정신력으로 무장한 회원들 모두 부상 없이 완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53회 광주일보 3·1절 국제마라톤에 30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광주철인클럽. 지난해 4월 담양홍수조절지에서 열린 듀애슬론 대회 당시 회원들의 단체사진. <광주철인클럽 제공>

24번째 시즌 맞는 임창용 “팀에 폐 안끼쳐야죠”



KIA 타이거즈의 24년 차 ‘최고참’ 임창용이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볼펜 피칭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의 ‘만행’ 임창용은 ‘후배들에게 폐 안 끼치는 선배’를 이야기한다. 후배들은 “같이 운동을 해보면 왜 임창용인지 알게 된다”며 그를 말한다.

임창용이 볼펜 피칭을 하던 며칠 전. 후배이자 KIA를 이끄는 두 축인 ‘전·현직 주장’ 이범호와 김주찬이 임창용의 피칭에 함께 했다. 김주찬은 선배의 실전 같은 피칭을 위해 타자 역할을 해줬고, 이범호는 옆에서 공 하나하나에 투입세를 넣어줬다.

몸이 풀리고 임창용의 볼펜 피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후배들의 입에서는 갑탄사가 이어졌다.

김주찬은 “공 좋다. 커브가 진짜 좋다”를 연발했고, 이범호는 아예 포수 뒤로 이동해 임창용의 공을 감상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3. 막내 하준영과는 무려 23살 차이가 난다. 올해도 벌써 24년 차이기도 한 그는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커브를 많이 던지지 않았는데, 커브는

후배들에 부담 주기 싫어 최고참으로 모범 보일 것 팀 전력 유지... 분위기도 좋아 우승팀 면모 이어 가겠다

원래 좋았다”며 웃은 임창용은 “팀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게 목표다”고 24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을 밝혔다.

그는 “후배들이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이 내가 눈치를 본다(웃음). 내가 최고참인데 앞에서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 후배들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며 자신의 고민을 말했다.

최고참으로 모범도 보여야 하고, 후배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임창용의 걱정과 달리 후배들은 임창용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임창용이 운동을 하고, 공을 던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후배들은 “정말 대단하다”며 나이를 잊은 선배에 존경을 표한다.

처음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고졸 2년 차 유승철에게도 임창용은 새로운 야구 교과서가 됐다.

유승철은 “캠프 와서 임창용 선배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대중이 없으시다. 운

동이 힘들고 그럴 때 나도 대중하기도 있는데 진짜 대중이라는 게 없다. 마음속에 임창용 선배님이 자리 잡았다. 선배님을 닮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야구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최고참으로 2018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임창용은 “후배들이 잘 해줄 것이다”며 올 시즌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임창용은 “캠프 분위기도 좋고 후배들이 알아서 잘한다. 최근 프로야구를 보면 한번 우승을 한 팀이 정상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우리 팀의 전력도 그대로이고 분위기도 좋은 만큼 우승팀의 면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천적’ 정성훈이 동료가 됐다는 게 변수라면 변수다.

임창용은 “(정)성훈가 나에게 8할 정도를 기록했다. 내 투구 습관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다. 나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그의 말대로 정성훈은 임창용의 볼펜 피칭 현장에서 잠시 ‘전력 분석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야구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되길 바라는 고향에서 우승까지 이루며 소원성취를 한 임창용. 아직도 그가 보여줄 경기는 많이 남아있다. 일단 임창용은 1일 한화와의 연습경기를 통해서 이번 스프링캠프 첫 실전 에 나선다.

/글·사진=wool@

정현 2회전 진출

ATP 멕시코오픈

정현(29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멕시코오픈(총상금 164만2795 달러) 16강에 올랐다.

정현은 27일(현지시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도널드 영(89위·미국)을 2-0(7-6(7-5) 6-1)으로 제압했다.

1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4강까지 진출한 정현은 발바닥 통증으로 약 3주간 재활 및 치료에 전념한 뒤 지난주 ATP 투어 텔레비비치 오픈을 통해 복귀했다.

텔레비비치 오픈에서 8강까지 오른 정현은 멕시코오픈 2회전에서는 에르네스토 에스코베도(123위·미국)를 상대한다.

에스코베도는 2회전에서 4번 시드의 잭 소크(10위·미국)를 2-0(7-5 7-6(7-3))으로 물리쳤다.

지난해 7월 세계 랭킹 67위까지 올랐던 에스코베도는 정현과 같은 1996년생으로 두 선수는 이번이 첫 대결이다.

이 대회 1번 시드는 라피엘 나달(2위·스페인)이 받았으나 허리 통증으로 불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시즌 첫 실전

오늘 샌디에이고 상대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018년 첫 실전을 치른다.

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시범경기가 그 무대다.

MLB닷컴은 지난 28일 ‘1일 경기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다저스의 선발은 류현진이다.

류현진은 2월초부터 하프피칭에 돌입했고, 볼펜피칭을 거쳐 24일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했다.

마이네리코 선발 유망주를 테스트 하던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26일부터 1~5선발로 꼽은 투수들을 내보냈다.

클레이턴 커소가 26일 시애틀 매리너스를 상대로 1이닝(무피안타 무실점)을 던졌고, 27일에는 알렉스 우드가 텍사스 레인저스전에 나서 1이닝(1피안타 2실점)을 소화했다. 28일에는 마에다 겐타가 2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아직 마운드에 서지 않은 선발 요원은 류현진과 리치 힐뿐이다. 류현진은 다른 선발 요원처럼 1~2이닝을 소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KIA 챔피언기 펠력은 일본 구장

선수단 숙소·가게들도 ‘우승 축하’ 현수막

KIA 타이거즈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KIA가 2018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오키나와 킨구장에는 지난해 없던 것들이 등장했다.

선수단 출입구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환영합니다”에서 “2017 KOREA CHAMPIONS 우승 축하합니다!”로 바뀌었고, 새로 마련된 진열대에 대형 우승 사인볼과 우승 모자 등이 전시됐다.

그리고 킨구장 전광판 위에 새로운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KIA 엠블럼기, 태극기 옆에 삼각형 모양의 ‘챔피언기’가 게양되어, ‘2017 챔피언이 훈련하는 경기장’임을 알리고 있다.

(사진) 선수단이 숙소로 사용하는 카리유시 리조트 측은 “한국 프로야구 우승팀이 머무는 숙소”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숙소 진입로에는 우승을 축하하는 문구

가 담긴 스탠딩 현수막이 새로 설치됐고, 웨이트장 휴식 공간에는 ‘KIA 타이거즈 올해도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쓰여졌다. 선수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소 인근 가게들도 우승팀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본 야구팬의 사인 요청 장면도 종종 목격된다. KIA 캠프장을 직접 찾는 일본 야구팬들도 있다.

KIA 구단도 ‘디펜딩 챔피언’을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4페이지의 캠프 가이드 소책자를 제작했다. 표지에는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 사진 아래 KIA 캠프 일정을 담은 달력을 넣었고, 2·3페이지에는 캠프 참가 선수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영어와 한글로 기재했다.

KIA와 KBO리그를 일어로 소개한 마



지막 페이지에는 엠블럼, 심볼 등을 담았다. 또 챔피언스필드와 챔피언스필드 사진도 실으면서 ‘야구심’ 오키나와를 찾는 일본 취재진과 관광객들에게 ‘한국 챔피언’을 소개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